**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3절>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은 201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꼬빌리시 한인공동체가 첫 예배 드린 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주의 종들의 신실한 섬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체코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라는 소명을 계속 따라가면서, 특별히 올 한해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주제말씀으로 삼고 함께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절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심한 갈증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태도로, 즉 온 마음으로 절규하듯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명령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응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을 쉽게 ‘기도’라로 부른다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간 하나님은 제게 그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유다 말기의 역사, 특별히 몇몇 왕들의 이름과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 중 하나로 평가되는 **요시야**가 죽고난 후,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서쪽의 이집트가 개입하여 그를 삼개월만에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동쪽의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조공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르던 여호야김 왕은 삼년쯤 지나 이를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 쪽에 붙으려다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응징을 당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석달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적국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 고니야의 삼촌, 즉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새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제 구년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유다로 쳐들어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성을 포위합니다. 그렇게 이 년을 버티다가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채로 적국에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그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 13년부터 유다 멸망 직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주로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정하셨으니 어서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나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으리라는 불길한 예언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메시지만 전하고 다니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했고, 늘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고자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그 소문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급히 철수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여 의기양양하게 외쳐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으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물건이 이 년 안에 이 곳으로 되돌아 오리라”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와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합니다. “유다를 도우려고 나왔던 이집트 군대는 곧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성을 치고 불사르리라”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거기 정착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례미야의 불길한 예언보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길한 예언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 주변국 이집트에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제 구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마침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을 포위합니다. 그 포위된 이 년 동안 성 안 백성들의 비참함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그를 바벨론에 항복하려 하는 자로 당국에 고발합니다. 이어 고관들은 그를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드기야 왕이 에벳멜렉이란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를 불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흐트러짐 없이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항복하면 왕이 생명은 보전할 것이고, 아니면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유다인들로부터 받을 조롱이 두려워 계속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에 하나냐의 예언이 틀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 것을 보았기에, 예레미야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굶어죽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성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전에도 한번 시위대 뜰에 있는 그에게 말씀이 임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3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즉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쳐들어오고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의 조카 하나멜 소유의 아나돗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이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게 왠 뜬금없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하나멜이 시위대 뜰로 그를 찾아와서는 자기 땅을 좀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제야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증인을 세워 조카와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셈입이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주님이 밭을 사라 하셔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 성은 곧 바벨론에 망할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가 차지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내가 쫓아 보냈던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33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새겨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함께 품고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며,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혼자 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높은 생각으로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경험하고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인간의 길보다 높았습니다. 그 높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하나의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라를 잃고 적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현실을 재앙이 아니라고 느낀 유다 백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조차도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평안과 희망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 포로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유럽 교회의 상황을 포로기 유다 백성의 현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한때 기독교제국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유럽이 20세기 들어 급격한 세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방족속들 가운데 힘없는 모습으로 거주하던 유다 포로들과도 같이, 오늘날 유럽 교회는 그 사회에서 주변화되었거나, 혹은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유럽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모이는 미션넷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전 YWAM 디렉터 제프 파운튼의 메시지가 제게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제 끝난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유럽에 아직 소망이 있는 일곱 가지 싸인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유럽에 새로운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유럽 사회를 흔들고 계시다. 셋째, 오늘날 유럽인들은 엄청난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다. 넷째, 유럽 각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출현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유럽에 들어와 살고 있다. 여섯째, 오늘 우리는 분열의 요소보다 연합의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일곱째,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것임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 일곱 가지 싸인을 말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럽을 향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며, 바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

오늘날 체코는 이 유럽 안에서도 가장 세속화된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 체코 사회와 교회의 현실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체코선교사도 아닌데 이 땅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짧게든 길게든,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할 때 그 첫걸음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S. D. 고든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저는 세계교회협의회 제 10차 부산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개회식 때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지난 100년의 역사를 뮤지컬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난과 눌림 속에 있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놀라운 결실로 이어지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위해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비판자나 방관자로만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을 함께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높은 소망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의 의미와 사명을 깨우쳐주기 원하시며,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편안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갇히기 전까지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까 싶어, 열심히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갇힌 후에는 시드기야 왕이 물을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대신 주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명분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로 유다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칠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곧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포로기 칠십 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심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족의 고통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랄 때 안 하더니 거 잘 됐다” 하겠습니까? 위로한답시고 하나냐처럼 제 마음대로 칠십 년을 이 년으로 고치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제 입을 닫아 버리기로 작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영적침체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은 마치 “야, 너랑 같이 안 하면 나 이 일 안 할 거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공개됩니다. 유다는 징계를 받겠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포로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분열 이전과 같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평안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되, 실제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상황들을 묘사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의 가슴이 뛰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목자가 나와 그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예레미야는 영적침체에서 벗어나 유다 멸망 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시드기야 제 11년,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고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에 예레미야는 석방됩니다. 이후 그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빈민들 가운데서 함께 사는 것을 택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곳에 남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이주하고자 할 때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땅에 온전히 심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참을 지나가야 하는 고난을 앞에 두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부르짖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시해 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에 사로잡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세우신 계획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좀 제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보리라, 작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삶을 함께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빕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그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높고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늘 초청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저희를 가까이 만나주시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올 한해 함께 기도의 삶에 힘쓰고자 하는**

**꼬빌리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